



“여기가 천국이네”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진 지난달 31일 오전 광주 염주체육관 실내빙상장을 찾은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타며 더위를 날리고 있다. /김태규 기자

“한전공대, 지체할 시간없다”

송갑석, 한전 본사에서 정책간담회…“내년 첫 삽 때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지난달 31일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한전공대 조기설립 추진 및 에너지밸리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10대 국정과제이자 지역 이행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설립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이어 “2022년 개교 계획을 맞추려면 유치는란은 시간낭비이고, 조기설립에 방점을 찍어야 할 시점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특히 “한전공대 설립은 부지가 어디로 결정되든지 광주·전남 발전의 이익이자, 에너지정책 구조 개편과 미래 에너지 가치창출이라는 한전의 비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22년 개교하려면 최소한 내년에는 첫 삽을 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규모에 비해 토지매입비 등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 작은 규모라도 세계적 석학들을 교수진으로 확보하는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내실있게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빠른 건립을 위해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유지보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부지선정이 해법”이라며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에너지밸리 활성화와 관련, 송 의원은 “2020년까지 500개 기업을 유치한다고 선언했는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국내기업 유치가 어렵다면 해외투자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주·전남의 청년실업 문제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채용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1인 가구 30%... ‘혼족’ 지역경제 좌우

직장인 박 모씨(33)는 여름휴가를 맞아 나홀로 떠나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목적지 선택과 숙박·관광지 등을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있다. 박씨는 이번 여행을 통해 자신의 미래 계획과 인생의 진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나홀로 문화’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경기침체·취업난 등이 장기화되면서 가족구조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핵가족에서 다시 1인 가구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유통·금융업계 등도 1인 가구의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마케팅과 상품출시 등을 통해 소비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도별 장래가구 추계치를 살펴본 결과, 광주지역 전체 가구수는 올해 57만9,000가구로 2020년 60만2,000가구에 이어 2036년 62만3,000가구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의 경우 2016년 29.9%이던 1인

광주 2045년 24만가구 달해... 소비트렌드 변화 유통업계·금융권, 다양한 마케팅·상품 등 출시

가구 비중이 지난해 30.6%로 0.7%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과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가족형태인 부부·자녀 가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1인 가구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6년 29.9%이던 1인 가구 비중이 지난해 30.6%로 증가했고, 이후 꾸준히 늘어 2045년엔 24만 가구(39.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1인 가구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혼족’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금융권도 혼족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하고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KB금융그룹은 지난해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금융패키지를 선보였다. ‘KB일코노미 청춘 패키지’는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한 국내 최초 맞춤형 패키지 상품이다. 이는 KB금융그룹 계열사의 6가지 상품으로 소비·건강·주거안정에 저축·투자까지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설계됐다.

우리은행이 출시한 ‘올포미(All for Me) 적금·카드 패키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갑자기 목돈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 간편하게 모은 돈을 쓸 수 있는 계

특징이다.

KEB하나은행의 ‘시크릿 적금’은 나를 위한 약속, 나를 위한 투자에 우대 금리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체중관리·성적향상 등 자기관리 약속이나 뷰티숍·문화센터 같은 힐링과 관련된 증빙영수증을 제시하면 최대 연 0.3%의 우대 금리를 준다.

지역 유통업계도 1인 가구를 겨냥한 상품 출시·마케팅에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최근 복날을 맞아 ‘초복 보양식 기획전’을 진행했다. 1인 가구의 기호에 맞춰 기획전에서 선보인 삼계탕·추어탕·우족탕·사골곰탕 등 즉석 조리제품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9.5% 신장했다.

광주지역 이마트도 올 상반기 기준으로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즉석밥 매출은 작년 동기대비 19.5%, 비빔밥·덮밥·국밥 등 컵밥의 매출은 43.2% 증가했다.

신선식품 매출 역시 별도의 손질없이 소량을 구매해 먹을 수 있는 조각과일이 49%, 보관이 편리하고 조리가 쉬운 반건조 생선이 45.5% 급증했다. 가전

시장에서도 소형·1인용 전자제품이 전성기를 맞고 있다.

올 상반기 광주지역 이마트 400L 미만 냉장고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32.0% 증가했다. 핸드 청소기 판매 역시 97.7% 증가했으며, 간편하게 요리를 만들어 먹는데 쓰이는 이마트 홈셰프(Home chef) 부문 매출도 86.2%의 신장률을 보였다. 7월(1-29일) 선풍기 매출 역시 소형이 55.8% 증가했다.

이처럼 소형·1인용 전자제품 매출이 급증하면서 이마트는 나홀로족을 겨냥한 ‘일렉트로닉 혼족 주방가전 7종’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로 집에서 조리해 먹기 편한 즉석조리 제품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소형가전의 성장세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조기철·길용현 기자

오늘의 전남매일	
지역 광공업 생산·수출 하락세	▶ 2면
향토기업열전-(주)푸른중공업	▶ 3면
이용섭광주시장 취임 한달	▶ 5면
장애학생 여름방학 문화체험	▶ 7면
여고 성희롱 파문 확산	▶ 9면
‘김제민&이호영’ 전	▶ 14면

흑산공항 찬반, 국립공원 해제로 번져

‘하늘길’ 염원 신안 주민들 청와대 국민청원 ‘생존권 vs 환경파괴’...환경부, 9월 재심

지역사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흑산공항 건설 찬반논란이 국립공원 해제 주장으로까지 번졌다.

“하늘길” 개설이 염원이 신안 흑산도 주민들이 공항건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립공원 해제를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하는 등 갈수록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흑산도 국립공원 해제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흑산도에는 멸종위기종 애기물소풍구리나 철새만 사는 것이 아니다. 멸종위기종인 토종 섬사람들도 산다”며 “소동구리와 철새들 때문에 1만5,000여 흑산군도 사람들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이 좌초되기에 처해 있다”고 썼다.

청원자는 특히 “현재 흑산공항보다 3배 많은 5,6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 중인 울릉공항은 연말 착공 예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흑산도보다 더 뛰어난 경관자원과 더

귀중한 생태자원을 가진 울릉도는 국가 지정국원인데도 단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환경단체들도 반대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흑산 섬사람들은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이익 보다는 규제와 차별을 더 많이 받고 살았다. 군부독재정권시대의 폐쇄된 흑산도국립공원구역 지정해제를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2011년 첫 발을 댄 흑산공항 건설은 최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 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재차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서 찬반논쟁이 더욱 뜨거워진 상황이다.

다음 위원회는 쟁점사항과 관련해 외부전문가, 지역주민, 관계기관 토론회를 거쳐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공명건설 잔성측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부각하며 건설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측은 ‘환경파괴’에 방점을 찍으며 불가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근산 기자



제4회 아시아 대학바둑 최강전

THE 4th University Cup Asia Baduk Championship

세계바둑의 중심지인 4개국 대학생들이 모여 바둑의 저변확대 및 세계화에 기여!

반상위에서 펼쳐지는 바둑은 그 한 수 한수가 언어이며 소통입니다. 각국 대표 대학생들은 서로 말은 통하지 않지만 반상위 수담으로 서로를 이해 하고 소통·교류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 할것으로 기대됩니다.

조훈현, 김인, 이세돌 등 세계바둑계의 거목들이 배출된 이곳 남도에서 열리는 아시아 대학바둑 최강전이 한국바둑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바둑 - 하늘과 땅과 사람이 공존하는 하나의 즐거운 축제!!

- ▶ 일 시 2018. 8. 24(금) ~ 8. 27(월) (3박4일)
- ▶ 장 소 광주과학기술진흥원
- ▶ 주 최 M 전남매일
- ▶ 주 관 한국대학바둑연맹 _ JM스포츠

